



5면

전주 정체성 담은 특별한 도서관 속속 개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음 10월 2일) 제312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5일 서울 여의도컨벤션호텔에서 진행된 전북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정치권과 '전북 몫 챙기기' 공조

도,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김관영 도지사, 도약·변화 동력 마련 위한 협력 강조
도, 핵심사업 26건 예산 반영 건의·현안 법안 통과 요청
회의 참석 의원들 내년 예산 확보·현안 해결 협력 약속

전북도의 내 몫' 챙기기를 위한 정치권의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본격적인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최대 확보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현안 법안 등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총 출동했으며,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은 결과 대규모 국가 사업을 연속 유치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도와 정치권이 '우 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더 큰 성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당면한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 주길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해야 하는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26건의 예산보증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 의료대학법,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등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현안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에도 힘

을 실어 주길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주요 사업 내년 예산반영과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제 내년 예산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며, 전북의원들이 팔팔 뭉쳐 성과를 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북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여·야 협치

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사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총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8일에는 김관영지사 주재로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에 대응해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지역구별로 정책질의서를 제공하여 반드시 상임위 심사에 전북도 중점사업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예산안 확정 전까지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예결위원장 및 간사, 예결소위위원 등 국회 핵심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인사,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상주년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삭감 방지 및 증액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수기자

재난관리지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사업 '계획대로 추진 중'

도, 점검 결과... 내달 철골공사 시작으로 연말까지 준공 목표
시·군 단위로도 소규모 개별 비축창고 신축사업도 추진 중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 재난관리지원 광역거점센터(이하 광역 거점센터) 신축 사업 점검결과 연초 수립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거점센터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 수습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복구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신축 중에 있다.

총 사업비 18억원 중 13억원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확보하였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는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1,000㎡이며 지상 1층, 철골구조 형식으로, 물품 보관 및 배송 등에 용이하도록 입·출고 동선계획을 적용해 설계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상반기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 공사를 착수해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11월 경 철골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본 센터가 완공되면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하게 돼 재난관리지원의 과부족, 동원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과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에 따른 공급부족 등과 같이 향후 도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물품 등을 사전에 비축·관리해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내년 사업으로 전라북도 주요 재난 유형 및 빈도 등을 반영해 재난관리지원의 품목과 수량을 확정하고 차근차근 비축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체계는 24시간 신속한 배송 체계를 갖추기 위해 운송사업자 선정 용역을 통하여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본 사업과 별도로 시·군 단위로도 소규모 개별 비축창고를 신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시군에서 7개가 신축을 완료했고 1개소가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도 광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지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재난의 대응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개 전략·30개 과제 선정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화재가 잦은 겨울철을 대비해 대령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11~2월) 화재는 총 2719건이다. 이 화재로 124명(사망 21명, 부상 103명)의 인명피해와 228억원의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7개 전략과 30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7개 전략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 요인 제거 △화재취약요인 제거 △화재안전 관리 제도개선 △대도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지역별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은 자체 화재안전 특수시책으로 비화재경보 10회 이상 대상에 대한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원인분석 및 시설 개선 권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